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사의 협력

-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품사가 '안전한 살생물처리 방법'을 지켰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품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자의 역할

- 오프라인 및 사이버물 판매자(통신판매업자)와 사이버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동차나 부품의 살생물 효능·효과에 대한 주장·광고를 임의로 추가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광고나 주장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살생물 기능에 대해 과도한 광고를 하는 부품은 주의하십시오. 자동차 부품이나 소모품 중 곰팡이나 세균 제거 기능을 강조하는 제품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판매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작사, 부품사와 판매자가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PDF 파일로 제공합니다.
<https://chemp.me.go.kr>



환경부 화학제품
관리시스템

환경부
자동차제작사
부품공급사와 유통사가
함께 하는

살생물제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만들기



이 홍보물은 재생필름을 사용한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잉크로 제작하였습니다.



살생물제 관리 제도 개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생물 제거 등이 목적인 모든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은 유·위해성과 효능 검증, 승인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허용됩니다.
- 아울러 제품의 보호와 미생물 증식 억제 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보존제 등)으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에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해야하며, 처리제품의 효과를 알리려는 경우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살생물물질

에탄올, 아연 등



살생물제품

살균제, 보존제 등



살생물처리제품

보존처리 플라스틱, 필터 등



살생물처리의 필요성과 위험성

- 일부 자동차 부품은 온도·습도 등 조건에 따라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해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살생물제품 처리가 필요합니다.
- 살생물처리시 미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선택하거나, 안전하게 사용(용량·용법, 주의사항 준수 등)하지 않으면 자동차 생산과정의 노동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안전한 살생물처리 방법

- 첫째, 자동차나 부품에는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승인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둘째, 자동차나 부품이 처리제품인 경우, 효과에 대한 과도한 광고나 주장으로 인해 살생물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셋째, 부품이 살생물제품(곰팡이나 세균 등의 제거를 목적, 예: 광촉매 살균장치)인 경우 제조·수입사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 이행 선포문

2023년 11월 27일

하나,

자동차업계는 보다 안전한 소비자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협력하여 마련한 ‘살생물제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완성차 업계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살생물제 관리제도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소비자의 안전 및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협력사 교육 및 가이드라인 공유 등을 통해 모든 협력사 및 공급망에서도 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자동차업계는 정부와의 협력하에 자동차 환경제도개선과 새로운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적용하며 소비자안전·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하나,

자동차업계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자발적인 규제이행을 위해 화학안전 현안 및 정책연구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한국소비자원과 상호 협력하겠습니다.

